

벤처, 대한민국 성장전략 중심에 선다

정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 AI·딥테크 육성 본격화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을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중심에 두고 전면적인 정책 전환에 나선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술·지역·인재·투자 등 국가 성장의 핵심 요소를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 시대에 벤처와 스타트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주체

로 떠오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의 단기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벤처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유니콘·데카론 기업 50개 창출 △연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혁신, 지역 확산, 인재 유입, 모험자본 확충 등 4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기술 분야에서는 GPU 자원 배분과 대규모 투자·보증을 통해 AI·

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고, 공공·산업 시장을 활용한 판로 개척과 글로벌 진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실리콘밸리 등 주요 해외 거점에 벤처 캠퍼스를 구축해 국내 벤처의 세계 진출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 측면에서는 지역 창업도 지원하고, 로컬벤처 육성, 지역 전용 투자펀드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실패 후 재도전을 지원하는 안전망도 강화해 '실패가 자산이 되는 창업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인재 분야에서는 벤처기업 인정 범

위를 확대하고 스톡옵션 제도 개선 등으로 우수 인재가 벤처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업이 정식 확산과 선배 벤처의 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문화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투자 분야에서는 모태펀드 2.0 도입과 민간 자본 참여 확대를 통해 모험자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산업에 처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주서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열려

중소벤처기업부, K-관광·문화 접목 '글로벌 상권'으로 지역경제 활력 모색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주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고, 지역 특색을 살린 글로벌 상권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 전주 한옥태조공공호텔에서 'K-관광·문화와 접목된 글로벌 상권 조성'을 주제로 제4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네 번째 일정으로, 소상공인 대표와 상권 기획 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정책 방향과 기술 기반 성장, 청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다뤘으며, 이번에는 지역경제의 핵심인 글로벌 상권 조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 전주 한옥태조공공호텔에서 'K-관광·문화와 접목된 글로벌 상권 조성'을 주제로 제4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병권 중기부 제2차

관은 전주 글로벌 상권 내 별첨 전문 브랜드숍 '윌케비'를 방문해 일본 시장 진출 사례를 청취하고, 웨딩거리 일대를 둘러보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사에서는 크립톤 오민정 팀장이 '전주 글로벌 상권 추진 현황'을 주제로 공동 브랜드 구축과 투자 유치 등 상권 변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건축 공간연구원 정인아 박사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권 브랜딩과 공간 관리 전략을 제시했으며, 중기부는 향후 글로벌 상권 조성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자유토론에서는 글로벌 앵커스토어 육성, 상권 방문·체류 환경 개선, 국내외 마케팅 확대, 지역 유희자원 활용 방안 등 글로벌 상권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병권 제2차관은 "K-관광·문화·산업과 연계한 상권트렌드 2.0을 통해 글로벌 상권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특색 있는 상권이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등 집기류도 노후화돼 이용에 불편이 컸다.

전북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던 교실 문과 문턱을 보수하고, 책상과 의자, 책장, 개인 사물함 등을 새로 설치해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이동식 TV를 지원해 아이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에도 도움을 줬다.

이날 오프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이남태 성내면장, 김기량 하늘땅지역 아동센터장, 전상의 전북은행 부행장, 이미영 고창지점장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전북은행, 고창 하늘땅지역아동센터에 'JB희망의 공부방' 조성

전북은행이 고창군 농촌지역 아동들을 위한 학습공간 개선에 나섰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7일 고창군 성내면 하늘땅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19호' 오픈식을 열고, 노후된 학습 환경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하늘땅지역아동센터는 학원이 없는 농촌 면 단위 지역에 위치해 방과 후 돌봄과 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는 곳이다. 하지만 시설이 오래돼 교실 문과 문턱이 높고, 책상과 의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7일 고창군 성내면 하늘땅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19호' 오픈식을 개최했다.

등 집기류도 노후화돼 이용에 불편이 컸다.

전북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던 교실 문과 문턱을 보수하고, 책상과 의자, 책장, 개인 사물함 등을 새로 설치해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이동식 TV를 지원해 아이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에도 도움을 줬다.

이날 오프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이남태 성내면장, 김기량 하늘땅지역 아동센터장, 전상의 전북은행 부행장, 이미영 고창지점장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남원시 그린바이오 성과 공유

전북테크노파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성과공유회 가져

남원시 그린바이오 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7일 남원 스위트호텔 스위트홀에서 '2025년도 남원시 시군연구고산업 육성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시군연구고산업육성사업의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차년도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남원 지역 수혜기업 16개사를 비롯해 사업 주관 및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올해 해당 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과 제품 리뉴얼, 공정 개선, 각종 인증 획득,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 및 기술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사업과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역 그린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지원사업 추진 성과 공유 △수혜기업 우수사례 발표 △기업 제품 전시 및 시연 △노무·통관 분야 전문가 1대1 상담 △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특히 사업을 통해 개발·고도화된 총 37종의 제품 성과물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북테크노파크, 재난안전 AI 기반 신산업 방향 모색

전북테크노파크가 재난안전 산업의 미래 방향과 AI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18일 전북 스마트농생명오픈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난안전 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2026년 전북특화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전문위원회는 '재난안전 산업의 미래, AI 기술로 여는 신산업 기획'을 주제로 열렸으며, 출연연과 대학, 산업체 등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15여 명이 참석해 전북지역 여건에 맞는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전문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북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했으며, 재난안전 환경 변화에 대응한 AI·스마트 기술

기반 전략 소개를 시작으로 재난안전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실증 사례 공유, 전문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김무림 본부장이 '재난안전 R&D 사업과 피지컬 AI 활용'을 주제로 재난 대응 기술의 산업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IIG시스템 장대원 소장은 재난안전 기술의 적용과 실증 사례를 소개하며 민·관 협력 기반 기술 실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원광대학교 지역혁신본부 이동기 본부장의 사회로 LX공간정보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예코융합시스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북지역과 연계 가능한 재난안전 산업 아이템 발굴과 차년도 국가 공모사업 연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농협 전북본부, 사랑의 쌀 나눔

농협 전북본부가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는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농협전북본부는 지난 17일 본부장실에서 '농협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고, 1,200만 원 상당의 쌀을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은영 전북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과 박수미 모금사업팀장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가 후원하고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것으로, 범농협 쌀 소비촉진 운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기탁된 쌀은 도내 취약계층 시설과 저소득층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